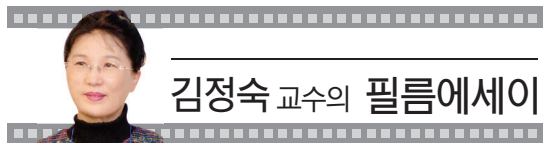


코믹의 행간에 숨어있는 페미니즘 그리고 매스쿨리즘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김한결 감독 '파일럿'

삼복더위가 이 정도였다고? 그간 여름철 외유를 해왔던 필자에게 삼복날씨를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올 더위는 살인적 체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때 가장 좋은 피서지는 서늘한 영화관이다. 그런데 썩 매력적인 영화가 없어 아쉽다. 덥기도 하고 한번 가볍게 웃어볼까 해서 선택한 영화는 '파일럿'. 예매율을 보니, 결국 올해의 여름 특수 혜택은 '파일럿'이 차지한 듯하다. 영화 '파일럿'은 2013년에 만들어진 영화 'Cockpit'이 원작이다. 계열 항공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상황을 유사하게 차용한 데다 공사 출신의 파일럿들이 민간항공사로 진출하는 관행 등 한국적 상황을 대입해 놓아서 스웨덴 영화를 각색한것이 표가 나질 않았다.

공중과 TV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출연할 정도로 한국에어의 스타 파일럿인 한정우(배우 조정석).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이라는 이력도 화려하다(수석 졸업자가 전역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잘나갈 수만은 없다. 전체 회식석상에서 오너 2세인 노정욱 상무(배우 현봉식)의 성차별적 발언을 수습하려다 궁지에 몰려 해고를 당한다. 설상가상으로 아



김한결 감독 '파일럿'.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내(배우 김지현)는 이혼을 선언하고 정우는 본가로 들어간다. 본가에는 가수 이찬원 덕질에 여념없는 일명 '찬포함미'인 어머니(배우 오민애)와 SNS에서 ASMR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여동생 정미(배우 한선화)의 구박이 기다릴 뿐이다.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궁여지책 끝에 여장을 하고 여동생 한정미의 이름으로 부기장에 응모한다. 한국에어의 오너 2세이자 한에어의 노문영 이사(배우 서재희)는 여성 파일럿을 키울 목적이 컸으므로, 한정우는 합격을 한다. 이후의 상황은 예상 만큼 좌충우돌 코믹한 상황이 벌어진다.

문제는, 이후의 스토리 구성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좌충우돌' 격 '역지' 코미디 느낌이 더 컸다. 배우 조정석의 여장이 예뻐했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특히, 윤슬기(배우 이주명)와의 우정을 나누는 신에서의 투샷은 누가 봐도 억지스러웠다. 전

반적 흐름에서 개연성은 적잖이 흐렸다. 영화 '파일럿'의 포인트는 남성이 여성 분장을 한다는 데 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나 '연모' 등에서는 카페에 입사하기 위해, 죽은 세자를 대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여성이 남장을 한다. 영화 '왕의 남자' (2005)나 '패왕별희' (1993) 같은 쿼터 문화와는 좀 다르게 구별지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 감독답게 영화는 코믹의 행간에 따끔따끔 끼워넣은 것이 있다. 면접 신에서 여성 파일럿은 "남자친구 없고 결혼 안할 거고 애도 안 낳을" 거라고 해야 뽐히는 사회임을 암암리에 보여준다. 조종실에서 여성 부기장에게 집적거리는 기장의 모습은 어쩌면 대한민국 직장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일는지 모른다. 이럴 때 영화에서처럼 "지랄견"으로 일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고로 불시착을 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남자 기장은 부기장이 여자라서 조종석을 넘기지 않겠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 한 대 언어맛을 만했다.

영화에서 한정우는 상사의 성희롱급 말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여승무원들이 꽃다발 같다"고 했다가 실적을 당했는데, 솔직히 자신의 해고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윤슬기로부터 "직장 내에서 여성에게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다고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는 것을 비로소 수궁하게 된다. 이 모두가 여성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다. 여성이라서 당해야 하는 부조리에 공감하게 되고 성장한 것이다. 가장 좋지 않은 건 이걸 마케팅에 이용하는 기업의 오너다. 한정미 부기장이 사고비행기로부터 200명의 승객을 구한 영웅이 되자, 한에어는 역대급의 매출을 올린다.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격한 것은 마땅한 일. 그러나 그녀의 실체가 한정우임을 알게된 노문영은 남동생을 딛고 자신이 두 항공사 총괄 오너의 자리에 오르는 데 간판스타 격인 한정미 기장을 이용하려 한다. 그렇지만 페미니즘을 역이용하려는 마케팅은 지구 인구의 절반수인 여성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코미디 영화를 위해 빛나는 조연은 배우 한선화의 백치미였다고 본다. 그녀가 걸그룹 가수 활동을 했을 때 보여주었던 철없이 밝은 엉뚱함이 성장해서 티없이 맑은 백치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선화 못지 않게 배우 오민애의 연기가 잘 어울려서 조연들의 케미스트리가 주연을 잘 뒷받침했다고 본다. 영화에서 한정우는 아들이 아버지처럼 파일럿이 되기를 바라지만 엄마처럼 발레리노를 꿈꾼다. 감독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남성의 내면에 여성성이 잠재해 있듯이 여성의 내면에도 남성성이 잠재해 있다. 혹시 페미니즘과 매스쿨리즘의 상호존중을 말하려 했는지 도...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택배 노동자 목숨 겨는 '총알' 배송



최재수천

윤준명

취재2부 기자
junmyung.yoon@jilbo.com

"매일 들어오는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다 보면 배달원들은 본인 몸이 갈려 나가는 것도 체감하지 못해요."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으로 택배 노동자의 업무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플랫폼에서 '총알', '로켓' 등 빠른 배송을 앞세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택배 노동자들은 매일 13~4시간의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폭염 등 극한의 날씨에도 업무를 멈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쏟아지는 물량을 제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각종 컴플레인도 접수돼 플랫폼 측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상기후가 안전을 위협하면 작업중지권을 사용해 근무를 멈추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 노동자가 산업재해 등의 급박한 위험을 느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측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연차, 휴가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기본급이 없고 건당 700~1000원대의 페이가 지급되는 급여 구조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일터로 향해야만 한다.

극한의 노동환경과 과로에 택배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전 1시40분께 심야배송 근로자 A씨가 트럭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7시께 제주시 애월읍의 모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B씨는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주안 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택배 배달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법 제2·3조가 개정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후 국회 임시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법 제2·3조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여당과 재계는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합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